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는 중구정치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이해훈 후보와 원팀 선언’등 논란

이정미 의원 민주당 탈당

무소속인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이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이해훈 국회의원 후보와 심야회동 한 후 국민의힘과 중구발전에 공동 노력한다는데 전격 합의하고, 이해훈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제22대 4·10 총선을 앞두고 중구의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길기영 의장은 “지난 2년간 공백기간을 아쉬워하며 정치적 동지 의식을 복원해 일탈된 당 조직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과거지향의 퇴행적 정당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및 중구발전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소재권·양은미·손주하)들은 27일 “정치적 승리를 위해 목숨걸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2년간 국민의힘 소속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 의원들과 낯가림에 대립하며 구청 예산의 대폭 삭감을



중구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주도하고 구청 공무원들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길기영 의원(의장)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지지표명을 거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미 의원이 3월 27일 오후 전격 탈당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중구의 정치

지형이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소속으로 남아 백의종군하며 주민들에게 신의와 성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소재권·양은미·손주하)들은 3월 29일 “이해훈 국회의원 중구성동을 후보의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명당

한 길기영 의원(의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후보와 충분히 대화하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후보를 직접 만나 길기영 의원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해훈 후보도 이에 동의했다”며 “남은 선거 기간 이해훈 후보 당선을 위해 단일대로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연 대표기자>

김현기 시의장, 식목일 시민들과 꽃·나무 식재

제79회 식목일 맞아 오세훈 시장등과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월 3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꽃·나무를 식재했다.

‘시민과 함께 동행매력정원 만들기’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철, 박춘선, 이종태, 장태용 시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초등학교 학생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뉴욕, 싱가포르에는 크고 작은 정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이처럼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 미래경쟁력을 단번에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도시속 녹지공간, 정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도 2026년까지 천 개의 동행·매력정원을 조성해 ‘어딜가든 서울가든’이 있는 ‘정원도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관계자들과 함께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시 서울 비전’을 추진한다”며 “서울시의회의는 한 그루의 나무가, 한 뼘 더 늘어난 공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믿음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내에 다종다양한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정원 1천 곳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형연 대표기자>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

중구, 민원 응대 매뉴얼 교육, 관련조례제정, 경찰합동 모의 훈련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확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감정노동에 지친 직원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참고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악성 민원 발생 시 통화 녹음과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는 내용이다. 이로서 해결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인 조치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력, 성희롱, 반복 민원 제기 등 유형별 세부 대응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6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으로 초빙해 ‘특이(악성)민원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전략’ 강의를 진행했다. △공감과 경청을 통해 정중함을 유지 △동료와

함께 해결 △원칙(법적 조치 등) 공유 △증거 확보(녹취 및 녹화) △감정 관리 등 ‘악성 민원 대응 5원칙’을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의료비 지원 등 보호·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악성민원에 의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의 훈련도 실시했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 직원들이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다가 마음의 병을 얻지 않도록 올해부터 ‘예방적 마음 건강 점검’을 실시한다. 감정노동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원 담당 직원 등을 우선으로 한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증 등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비용을 신청하면 직원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심비로 지원한다. 또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는 등 직원의 심리 회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마음 건강 상담실’은 개선해 운영한다. 지난해까진 정해진 상담센터에서 진행했던 마음 상담을 올해부터는 직원이 원하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비용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엔 총 32명의 직원이 114건의 상담을 받은 바 있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일삼으며 공무원은 물론 이웃에도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형연 대표기자>

다산어린이집 등에 상자형 텃밭 조성

서울 중구가 다산어린이집, 중림어린이집, 아이다움어린이집 등 세 곳에 총 15㎡ 규모로 아이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상자형 텃밭을 만들어 준다.

아이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 무, 배추 등을 손수 키워볼 수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회에서 4~6월 어린이집으로 나와 강의도 진행한다.

어린이 텃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중구가 부담한다. 직접 기른 채소는 수확해 요리 등 건강한 식단도 공부해 본다.

중구자치신문	www.jgnews.co.kr
발행·편집인 이형연 인쇄인 김갑기 등록번호 서울다 06117 週刊	
등록연월일 : 2001.8.3, 발행연월일 : 2001.9.17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 20길 12, 수창B/D 312호 (신당동) E-mail ejgnews@hanmail.net / desk386@naver.com 편집국 대표전화 : 02-2237-3203, 팩스 : 02-2237-3721 광고문의 : 02-2237-3203~4 구독료 1부 5,000원 1개월 10,000원 1년 120,000원 입금계좌 : 하나은행 262-910023-37007 본사 제휴 언론사 : 굿데이신문, 뉴시스 통신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의회, 제3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인구감소 문제 해결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방안 주제

만39세 이하 대상 총상금 550만원

2015년 천만을 상회하던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24년 2월 현재 938만여 명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수도 서울의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서울특별시의회와 (사)한국지방의회학회는 서울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모색하는 ‘제3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제1회는 ‘지방분권, 재정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제2회는 ‘지방의회 현실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말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편(200만원), 우수상 2편(100만원), 장려상 3편(50만원)을 선정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접수(smcbudget@seoul.go.kr) 하면 된다.(문의 02-2180-7952) <문당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거방송

정성! 치후원금이 만드는
정성! 숙한 정치문화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장점]

후원회 계좌 확인 및
인적사항 전달 용이

후원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